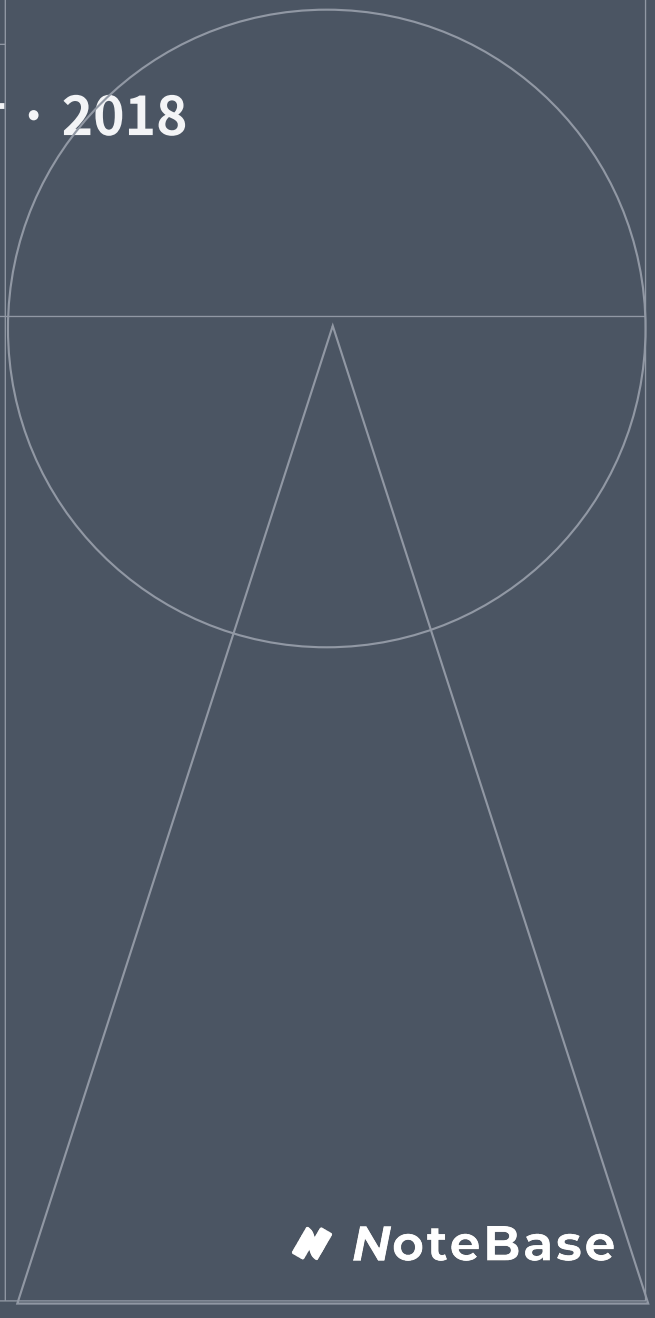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8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18

문 1.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매입채무와 같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항목이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분류할 때 정상영업주기 기준, 12개월 기준, 부채 결제 연기권 기준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 판매·소비할 자산,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자산이다.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될 부채, 단기매매 목적 부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될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없는 부채이다.
핵심 구별은 운전자본 관련 항목은 12개월 문구보다 정상영업주기 기준을 먼저 본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유동자산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이 예상되거나 그 주기 내 판매·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문장은 유동자산의 정상영업주기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다.
② O.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다. 정상영업주기 요건이 아니어도 12개월 이내 실현 기준만으로 유동자산이 될 수 있다.
③ O.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으면 그 부채는 유동부채이다. 문장은 유동부채 분류 기준 중 연기권 부재를 정확히 말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운전자본의 일부항목이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이다. 매입채무처럼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 관련 부채는 결제일이 12개월을 넘어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올바르게는 '매입채무와 같이 정상영업주기 내 발생·결제되는 부채는 결제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해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모든 항목에 12개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④는 '12개월 후 결제'라는 문구만 보면 비유동부채처럼 보이지만, 매입채무 같은 운전자본 관련 부채는 정상영업주기 기준이 우선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부채 분류 문제는 먼저 정상영업주기와 직접 연결되는 항목인지 본다. 그다음 12개월 이내 실현·결제 여부를 보고, 부채라면 마지막으로 12개월 초과 결제 연기권의 존재를 확인한다. 매입채무·재고처럼 영업순환에 묶인 항목은 12개월 숫자보다 정상영업주기 기준을 먼저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운전자본 항목은 12개월보다 정상영업주기가 먼저이고, 부채는 12개월 초과 연기권이 없으면 유동부채이다.

NoteBase

문 2.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 수정전시산표를 근거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다음 20×1년 중 발생한 거래의 분개에 대하여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단, 결산수정분개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날짜	기중분개	결산수정사항
3월 1일	차변)토지 ₩1,000,000 대변)현금 ₩1,000,000	토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기말 공정가치는 ₩1,050,000
10월 1일	차변)선급보험료 ₩120,000 대변)현금 ₩120,000	1년분 화재보험료를 미리 지급함
11월 1일	차변)현금 ₩90,000 대변)임대수익 ₩90,000	6개월분 임대료를 미리 받음
12월 1일	차변)현금 ₩1,000,000 대변)단기차입금 ₩1,000,000	차입 시 이자율 연 6%, 이자와 원금은 6개월 후 일괄 상환조건

① ₩180,000

② ₩205,000

③ ₩235,000

④ ₩25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정분개에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이자, 토지 재평가의 손익 귀속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정전시산표 기준 당기순이익 3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결산수정사항 반영 후 당기순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토지 재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주의할 조건: 보험료, 임대료, 이자는 월 단위로 기간배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간배분액 = 해당 금액 × 경과월수 / 전체월수
이자 = 원금 × 연이율 × (경과월수)/(12)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선급보험료와 선수임대료는 경과한 기간만큼만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하고, 차입이자는 발생한 기간만큼만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토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므로 기말 공정가치 1,050,000원은 장부가 1,000,000원보다 50,000원 크다. 그러나 이 50,000원 증가는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선급보험료 120,000원은 10월 1일에 1년분을 지급했으므로 12월 말까지 경과한 3개월분만 비용이다. 따라서 보험료비용은 120,000원 × 3/12 = 30,000원이다.
3. 임대료 90,000원은 11월 1일에 6개월분을 미리 받은 금액이므로 12월 말까지 실현된 것은 2개월분이다. 따라서 당기수익은 90,000원 × 2/6 = 30,000원이고, 이미 전액을 임대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6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4. 단기차입금 1,000,000원은 12월 1일 차입이므로 12월 한 달치 이자를 인식한다. 이자비용은 1,000,000원 × 6% × 1/12 = 5,000원이다.
5.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300,000원 - 30,000원 - 60,000원 - 5,000원 = 205,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205,000원이므로 180,000원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 보험료는 1년분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 30,000원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임대수익도 6개월분 전액이 아니라 2개월분 30,000원만 당기수익으로 남겨야 한다. 여기에 12월 이자 5,000원을 반영하면 올바른 금액은 205,000원이다.

② O
- 수정사항의 손익 영향은 보험료비용 30,000원 증가, 임대수익 60,000원 감소, 이자비용 5,000원 증가이다.
- 토지 재평가이익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205,000원으로 ②가 옳다.

③ X
- 235,000원은 보험료의 기간배분 조정을 누락한 값이다.
- 선급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 두었더라도 기말에 3개월분 30,000원을 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235,000원이 아니라 205,000원이다.

④ X
- 255,000원은 토지 재평가이익 50,000원을 당기순이익에 잘못 포함한 값이다.
- 토지의 재평가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되므로 순이익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255,000원이 아니라 205,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현금의 수수 시점만 보고 전액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두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토지 재평가증가를 순이익에 넣는 실수, 선급보험료를 자산으로만 남겨 두는 실수, 선수임대료 전액을 당기수익으로 보는 실수, 차입이자의 발생분을 누락하는 실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분개 문제는 먼저 각 거래가 기말 현재 몇 개월 경과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경과분만 손익으로 돌린다. 그리고 평가이익처럼 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항목은 순이익 계산에서 제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급은 경과분만 비용, 선수는 경과분만 수익, 미지급이자는 발생분만 비용, 토지 재평가증가는 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이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고 그 건물을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유형자산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20×1년과 20×2년 기말 공정가치가 각각 ₩990,000, ₩750,000일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건물은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며, 내용연수 동안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면,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계상된다.

②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면, 20×2년 말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이 계상된다.

③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면, 20×1년 말 투자부동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계상된다.

④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면, 20×2년 말 투자부동산평가손실(당기손익)이 계상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과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 인식 위치와 금액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00,000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20×1년 말 공정가치 990,000원, 20×2년 말 공정가치 7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자산 분류별 20×1년과 20×2년의 평가손익 인식 금액과 인식 위치이다.
주의할 조건: 유형자산은 재평가모형이므로 감가상각 후 재평가하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이므로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 전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재평가증가액=공정가치-재평가 전 장부금액, 재평가감소액=재평가 전 장부금액-공정가치이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당기 평가손익=기말 공정가치-직전 장부금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같은 건물을 어떤 회계모형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와 평가손익의 인식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20×1년 감가상각비는 100,000원이고,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900,000원이다.
2. 따라서 20×1년 말 재평가증가액은 990,000원-900,000원=90,000원이며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3. 20×2년 초 장부금액은 990,000원이고 잔여내용연수는 9년이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110,000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880,000원이다.
4. 따라서 20×2년 말 재평가감소액은 880,000원-750,000원=130,000원이다. 이 중 90,000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초과 40,000원은 당기손익의 재평가손실로 인식된다.
5.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20×1년에는 990,000원-1,000,000원=-10,000원으로 평가손실이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6. 20×2년에는 750,000원-990,000원=-240,000원으로 평가손실이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형자산의 20×1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900,000원이고 공정가치는 990,000원이다. 증가액 90,000원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므로 옳은 선지이다.

② O
20×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880,000원이고 공정가치는 750,000원이므로 재평가감소액은 130,000원이다. 기존 재평가잉여금 90,000원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차감되고, 초과 40,000원은 당기손익의 재평가손실로 인식되므로 '재평가손실이 계상된다'는 진술은 옳다.

③ X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20×1년 말에는 990,000원-1,000,000원=-10,000원이므로 평가이익이 아니라 평가손실이 당기손익에 계상된다. 틀린 표현은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고, 올바르게는 '평가손실(당기손익)'이다.

④ O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면 20×2년 말 평가손익은 750,000원-990,000원=-240,000원이다. 공정가치 하락 240,000원은 전액 당기손익의 평가손실로 인식되므로 옳은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재평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모두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손익 인식 위치까지 같다고 보면 ③에 넘어가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증가액은 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가지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변동은 증가든 감소든 모두 당기손익으로 간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건물 분류 문제가 나오면 먼저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인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인지를 구분한다. 그다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재평가하고,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 전액을 당기손익에 넣는지 확인하면 선지의 O/X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유형자산 재평가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변동은 전부 당기손익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③ 비화폐성 외화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④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정답 1번

쟁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자산 취득원가와 무형자산·외화자산·보증충당부채의 평가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관리전환이 무상거래인지 유상거래인지에 따라 취득원가가 장부가액인지 공정가액인지가 달라진다는 점이 정답을 가른다.

용어 풀이

관리전환 = 국가회계실체 사이에서 자산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장부가액 =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다.
공정가액 =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재의 교환가치이다.

핵심 구분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무주부동산의 취득이나 기부채납 등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반면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별도로 보아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취득 당시 환율을 적용하며, 보증충당부채는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이 무상거래인 경우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이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다. 이 선지는 무상거래의 평가기준을 유상거래의 기준과 뒤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올바른 표현: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O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선지는 상각방법, 상각개시시점, 상각기간의 기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다.

③ O
비화폐성 외화자산을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역사적원가는 취득시점 기준으로 환산한다는 원칙을 묻는 선지이므로 옳다.

④ O
보증충당부채는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보증 관련 부채를 단순 명목가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본다는 규칙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무상거래'와 '공정가액'을 자동으로 연결하게 만드는 데 있다. 기부채납이나 무주부동산 취득은 공정가액이 맞지만,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이 기준이 된다. 일반적인 무상취득 규정과 관리전환의 특칙을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 취득원가 문제가 나오면 먼저 거래유형을 구분한다.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이면 특칙을 적용하여 무상은 장부가액, 유상은 공정가액으로 판단한다. 그 밖의 무상취득인지, 무형자산 상각인지, 외화자산 환산인지, 충당부채 현재가치 평가인지로 문장 핵심어를 나누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관리전환은 무상이면 장부가액, 유상이면 공정가액이다.

NoteBase

문 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유지개념에서는 자본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액만이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②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의 이익은 해당기간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③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면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으나,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역사적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자본유지개념과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의미, 그리고 명목화폐단위와 불변구매력단위에서의 이익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재무자본유지개념은 기초 대비 기말 순자산의 화폐금액이나 구매력이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익을 보는 개념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생산능력이나 영업능력 같은 실물자본이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익을 보는 개념이다. 불변구매력단위의 재무자본유지에서는 일반물가상승분은 자본유지분이고, 이를 초과한 증가분만 이익이 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자본유지개념에서 이익은 자본을 유지하고 남은 초과분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자산 유입액만 이익으로 본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2번: O. 재무자본유지개념의 이익은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뒤 기말 순자산의 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화폐금액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선지는 배분과 추가 출연을 제외한다고 설명하므로 옳다.
3번: O. 재무자본유지개념을 불변구매력단위로 보면 일반물가상승만큼의 증가는 자본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 증가분만 이익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4번: X. 틀린 부분은 '역사적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 측정기준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맞지만, 실물자본유지개념은 보통 현재원가 등 현행가치 정보가 필요하며 역사적원가 측정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려면 생산능력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재원가 중심의 측정이 필요하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4번은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 측정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맞는 문장 뒤에 '실물자본유지개념은 역사적원가로 측정해야 한다'는 틀린 문장을 붙여 함정을 만든 선지이다. 실물자본유지는 생산능력 유지가 핵심이므로 역사적원가보다 현재원가와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유지 문제는 먼저 유지 대상이 화폐금액인지 생산능력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화폐금액 유지이면 재무자본유지, 생산능력 유지이면 실물자본유지로 본다. 그다음 불변구매력단위가 나오면 일반물가상승분은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분으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재무자본유지는 화폐금액 유지, 실물자본유지는 생산능력 유지, 불변구매력에서는 물가상승 초과분만 이익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주)한국의 20×1년 말 주가이익비율(PER)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 ₩88
◯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 30주
◯ 20×1년 7월 1일 유상증자: 보통주 25주(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1주당 발행가액은 ₩4이며, 이는 유상증자 권리락 직전 주당 종가 ₩5보다 현저히 낮음)
◯ 20×1년 12월 31일 보통주 시가: 주당 ₩6

① 1.5
② 2.0
③ 2.5
④ 3.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저가발행 유상증자의 무상주 요소를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EPS를 구한 뒤, PER = (주가)/(EPS)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당기순이익 88,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 30주, 7월 1일 유상증자 25주, 발행가액 4, 권리락 직전 주당 종가 5, 12월 31일 주가 6이다.
월할 계산이므로 1~6월과 7~12월을 각각 6개월 반영한다.
발행가액 4가 시가 5보다 낮으므로 권리락 전 기존 주식수에는 무상주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PER = (주가)/(EPS), EPS = (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다.
저가발행 유상증자는 구주에 무상주 요소가 포함되므로 권리락 전 주식수에 보정계수를 곱한다.
보정계수는 (권리락 직전 주가)/(이론권리락주가)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이론권리락주가는 $\frac{30\times5+25\times4}{30+25}=\frac{250}{55}=4.545...$이다.
2. 보정계수는 $\frac{5}{4.545...}=1.1$이므로, 권리락 전 기존 30주는 $30\times1.1=33$주로 보정된다.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33\times\frac{6}{12}+55\times\frac{6}{12}=16.5+27.5=44$주이다.
4. EPS는 $\frac{88}{44}=2$이다.
5. 따라서 PER는 $\frac{6}{2}=3.0$이다.

선지 판단

1번 X: PER의 정확한 계산값은 3.0이다. 1.5는 주가 6과 EPS 2의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이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3.0이다.
2번 X: 2.0은 PER가 아니라 EPS 값이다. 이 문항은 주가이익비율을 묻고 있으므로 주가 6을 EPS 2로 나눈 3.0이 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3.0이다.
3번 X: 저가발행 유상증자의 무상주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계산된 PER는 3.0이다. 2.5는 가중평균주식수 또는 PER 공식을 잘못 적용한 값이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3.0이다.
4번 O: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4주, EPS 2, PER 3.0으로 계산되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저가발행 유상증자에서는 신주 수 25주만 단순 가산하면 안 되고, 권리락 전 기존 주식수 30주에 무상주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EPS 2.0을 그대로 PER로 착각하면 2번에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PER 문제는 먼저 EPS를 구하고, 저가발행 유상증자가 있으면 권리락 전 주식수 보정 여부를 확인한 뒤, 마지막에 PER = (주가)/(EPS)를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저가발행 유상증자 EPS는 기존주식수 보정 후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고, PER는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년 초 타사발행 사채A(액면금액 ₩500,000, 액면이자율 연 8%, 유효이자율 연 10%, 이자 매년 말 후급)를 ₩46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채A의 20×1년 기말 공정가치는 ₩520,000이며, 20×2년 초 사채A의 50%를 ₩290,000에 처분하였다. 사채A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인식할 20×1년 평가이익과, 20×2년 처분이익은?

① 평가이익 ₩54,000, 처분이익 ₩30,000

② 평가이익 ₩54,000, 처분이익 ₩57,000

③ 평가이익 ₩60,000, 처분이익 ₩30,000

④ 평가이익 ₩60,000, 처분이익 ₩57,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 기말 공정가치 평가이익, 처분 시 OCI 재분류를 함께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460,000원, 액면금액은 500,000원, 액면이자는 40,000원, 유효이자는 10%이다.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20,000원이고, 20x2년 초에 전체의 50%를 290,000원에 처분하였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수익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고, 상각후원가는 기초 장부금액 + 이자수익 - 현금수취이자이다. FVOCI 채무상품의 기말 평가이익은 공정가치 - 상각후원가이며, 처분이익은 처분대가와 처분일 상각후원가의 차이에 더해 해당 부분의 누적 OCI 재분류액까지 반영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 자산이 채무상품이므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를 먼저 구한 뒤, FVOCI 분류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누적하고 처분 시 이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20x1년 이자수익은 460,000원×10%=46,000원이다. 현금수취이자는 500,000원×8%=40,000원이므로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6,000원이다. 따라서 20x1년 말 상각후원가는 $460{,}000 + 46{,}000 - 40{,}000 = 466{,}000$원이다. 20x1년 평가이익은 $520{,}000 - 466{,}000 = 54{,}000$원이다. 20x2년 초 50% 처분분의 상각후원가는 233,000원이고, 누적 OCI는 27,000원이다. 따라서 처분이익은 $290{,}000 - 233{,}000 = 57{,}000$원이며, 이는 같은 금액으로 $290{,}000 - 260{,}000 = 30{,}000$원에 누적 OCI 27,000원을 더해도 확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평가이익 54,000원은 맞지만 처분이익 30,000원은 공정가치 260,000원과 처분대가 290,000원의 차이만 본 값이라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처분이익을 30,000원으로 본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누적 OCI 27,000원을 재분류하여 처분이익은 57,000원이다. ② O. 20x1년 평가이익은 54,000원이고, 20x2년 초 처분이익은 상각후원가 기준 57,000원이므로 맞다. ③ X. 평가이익 60,000원은 취득원가 460,000원과 기말 공정가치 520,000원의 차이만 보고 상각후원가 466,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라서 틀리다. 틀린 표현은 평가이익을 60,000원으로 본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유효이자율법 적용 후 평가이익은 54,000원이다. 처분이익 30,000원도 누적 OCI 재분류를 빠뜨려 틀리다. ④ X. 처분이익 57,000원은 맞지만 평가이익 60,000원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평가이익을 60,000원으로 본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상각후원가 466,000원을 기준으로 평가이익은 5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FVOCI 채무상품의 처분이익을 공정가치 대비 매각차익 30,000원으로만 보는 것이다. 이 문항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하고, 처분 시에는 누적 OCI 27,000원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무상품 FVOCI 문제는 상각후원가 계산, 기말 OCI 평가차익 계산, 처분 비율만큼 누적 OCI 재분류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처분이익을 묻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기준 매각차익과 상각후원가 기준 당기손익을 구분해서 본다.

암기 포인트

FVOCI 채무상품은 보유 중 평가손익은 OCI, 처분 시 누적 OCI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1월 1일 액면금액 ₩50,000(액면이자율 연 8%, 이자 매년 말 후급)의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같은 해 4월 1일에 발행하였다. 1월 1일과 4월 1일의 유효이자율은 10%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1월 1일 사채의 현재가치는 ₩47,513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채발행비는 발생되지 않았고, 사채이자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4월 1일의 사채액면이자 미지급액은 ₩1,000이다.

② 4월 1일의 사채장부금액은 ₩47,701이다.

③ 4월 1일의 현금수령액은 ₩48,701이다.

④ 4월 1일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2,487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채를 발행예정일보다 늦게 발행할 때 발행일 현재 장부금액, 현금수령액, 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법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50,000원, 액면이자율 연 8%, 유효이자율 연 10%, 이자지급일 매년 말, 1월 1일 현재가치 47,513원이다.
구해야 할 값: 4월 1일의 액면이자 미지급액, 사채장부금액, 현금수령액, 사채할인발행차금이다.
주의할 조건: 사채는 1월 1일에 발행 예정이었으나 실제 발행은 4월 1일이므로 3개월 경과분 이자와 할인차금 상각을 반영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법에 따라 기간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 경과개월수/12로 계산한다.
액면이자는 액면금액 × 액면이자율 × 경과개월수/12이다.
할인차금 상각액은 유효이자에 의한 이자비용 - 액면이자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4월 1일 발행가는 단순히 1월 1일 현재가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행예정일부터 실제 발행일까지의 유효이자와 경과이자를 반영한 4월 1일 현재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의 액면이자는 $50,000 \times 8\% \times \frac{3}{12} = 1,000$원이다.
2. 같은 기간의 유효이자에 의한 이자비용은 $47,513 \times 10\% \times \frac{3}{12} = 1,187.825$원이므로 반올림하면 1,188원이다.
3. 할인차금 상각액은 $1,188 - 1,000 = 188$원이다.
4. 4월 1일 사채장부금액은 47,513원 + 188원 = 47,701원이다.
5. 4월 1일 현금수령액은 장부금액 47,701원에 경과이자 1,000원을 더한 48,701원이다.
6. 4월 1일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 50,000원 - 장부금액 47,701원 = 2,299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4월 1일의 사채액면이자 미지급액은 경과이자이므로 $50,000 \times 8\% \times \frac{3}{12} = 1,000$원이다.

② O
4월 1일의 사채장부금액은 1월 1일 현재가치 47,513원에 3개월간 할인차금 상각액 188원을 더한 47,701원이다.

③ O
실제 발행 시 회사가 받는 현금은 사채의 장부금액 47,701원과 투자자로부터 함께 받는 경과이자 1,000원을 합한 48,701원이다.

④ X
4월 1일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발행일 현재 액면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이므로 50,000원 - 47,701원 = 2,299원이다. 틀린 표현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2,487원이다'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4월 1일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2,299원이다'가 된다.
2,487원은 1월 1일 현재의 할인발행차금 $50,000 - 47,513$이고, 4월 1일까지 188원이 상각된 뒤의 금액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1월 1일 현재가치에서 바로 액면금액을 빼 2,487원을 고르면 발행예정일의 할인차금을 발행일의 할인차금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실제 발행일까지 3개월이 경과했다는 점과, 그 동안 유효이자법에 따라 할인차금이 상각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행예정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르면 먼저 경과개월수의 액면이자와 유효이자를 계산하고, 그 차이만큼 할인차금을 상각한 뒤 실제 발행일 장부금액을 구해 선지를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연발행 사채는 '예정일 현재가치에서 시작하여 유효이자법으로 경과분을 반영한 뒤 실제 발행일 금액을 판단한다'는 구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주)대한은 20×1년 12월 초 위탁판매를 위해 (주)민국에게 단위당 원가 ₩1,200인 상품 500개를 적송하면서 운임 ₩30,000을 현금 지급하였다. 20×2년 1월 초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대한은 (주)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판매현황을 보고받았다.

(주)대한이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20×1년 재무제표에 인식할 매출액과 적송품 금액은? (단, (주)대한은 계속기록법을 채택하고 있다)

매출액	400개 × @₩1,500=	₩600,000
판매수수료	₩18,000	
운임 및 보관료	₩12,000	(₩30,000)
(주)대한에게 송금한 금액		₩570,000

① 매출액: ₩570,000, 적송품 금액: ₩120,000

② 매출액: ₩570,000, 적송품 금액: ₩126,000

③ 매출액: ₩600,000, 적송품 금액: ₩120,000

④ 매출액: ₩600,000, 적송품 금액: ₩126,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위탁판매에서 연말 매출액은 총판매액으로 인식하고, 적송 시 운임은 미판매 적송품 원가에 배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적송 수량: 500개
- 단위당 원가: 1,200원
- 적송 시 운임: 30,000원
- 보고된 판매 수량: 400개
- 미판매 수량: 100개
- 판매수수료: 18,000원
- 운임 및 보관료: 12,000원

NoteBase

사용할 공식

적송품 단가 = 상품원가 + 적송 시점까지의 원가성 부대비용 배부액이다.
적송품 금액 = 미판매 수량 × 적송품 단가이다.
매출액 = 위탁판매 총판매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위탁판매의 매출은 순송금액이 아니라 총판매액으로 보고, 위탁자가 부담한 적송 시 운임은 재고가 아직 남아 있으면 그 미판매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적송 시 운임 30,000원은 적송품 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당 적송품 단가는 1,200원 + 30,000원 ÷ 500개 = 1,260원이다.
2. 미판매 100개의 적송품 금액은 100개 × 1,260원 = 126,000원이다.
3. 매출액은 400개 × 1,500원 = 600,000원이다.
4. 판매수수료 18,000원과 운임 및 보관료 12,000원은 위탁판매비이므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 570,000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 판단

1번: X. 570,000원은 총매출액이 아니라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순송금액이다. 적송품 120,000원도 적송 시 운임 30,000원을 재고원가에 포함하지 않아 틀리다. 틀린 표현은 '매출액 570,000원, 적송품 12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매출액 600,000원, 적송품 126,000원'이다.
2번: X. 적송품 126,000원은 맞지만 매출액 570,000원은 순송금액을 매출액으로 본 값이어서 틀리다. 틀린 표현은 '매출액 57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매출액 600,000원'이다.
3번: X. 매출액 600,000원은 맞지만 적송품 120,000원은 개당 원가 1,200원만 적용한 값이어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적송품 12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적송품 126,000원'이다.
4번: O. 매출액은 총판매액 600,000원으로 인식하고, 미판매 100개의 적송품은 개당 1,260원으로 평가하므로 126,000원이 된다.

오답 포인트

송금액 570,000원을 곧바로 매출액으로 착각하기 쉽고, 적송 시 운임 30,000원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해 미판매 적송품에 배부하지 않으면 120,000원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탁판매 문제는 먼저 총판매액과 순송금액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위탁자 부담 원가성 적송비를 미판매 수량에 배부한 뒤, 판매수수료와 판매 후 발생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탁판매는 매출은 총액, 수수료는 비용, 적송 시 운임은 재고원가이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상환우선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연 배당률 6%, 누적적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 (주)한국은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20×3년 12월 31일에 주당 ₩6,000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배당금은 매년 말 지급하며, 상환우선주 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상환우선주 발행이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율 10%, 3년간 ₩1의 현가계수 및 연금현가계수는 각각 0.75, 2.5라 가정하며, 현가계수 가정에 따른 상환우선주 발행가와 유효이자율에 의한 만기상환장부금액의 차이는 무시한다)

① 20×1년 1월 1일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525,000이다.

② 20×1년 12월 31일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547,500이다.

③ 상환우선주의 발행으로 20×1년 당기순이익이 ₩52,500 감소한다.

④ 20×1년 배당금 ₩30,000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유자 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의무상환해야 하는 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현재가치로 발행가액과 유효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상환우선주 100주, 주당 액면금액 5,000원, 연 배당률 6%, 3년 뒤 주당 상환금액 6,000원, 유효이자율 연 10%이다.
구해야 할 값: 발행가액, 20x1년 말 장부가액, 20x1년 손익 영향, 배당금의 성격이다.
주의할 조건: 보유자 청구가 있으면 현금상환 의무가 있으므로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본다. 따라서 배당금은 이익분배가 아니라 이자지급의 성격을 가진다.

사용할 공식

발행가액은 현재가치 = 연간 배당금 × 연금현가계수 + 만기상환금액 × 현가계수 로 계산한다.
기말 장부가액은 기말장부가액 = 기초장부가액 + 유효이자비용 - 현금지급액 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 상환우선주가 고정된 배당과 만기상환의무를 가진 금융부채이므로 사채와 같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간 배당금은 500,000원 = 100주 × 5,000원의 6%이므로 30,000원이다.
2. 발행가액은 $30,000 \times 2.5 + 600,000 \times 0.75 = 75,000 + 450,000 = 525,000$원이 된다.
3. 20x1년 유효이자비용은 $525,000 \times 10\% = 52,500$원이다.
4. 20x1년 말 장부가액은 $525,000 + 52,500 - 30,000 = 547,500$원이다.
5. 따라서 20x1년 손익에는 이자비용 52,500원이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발행가액은 배당금 현재가치 75,000원과 상환금액 현재가치 450,000원의 합계인 525,000원이므로 옳다.

② O
20x1년 말 장부가액은 기초 장부가액 525,000원에 유효이자비용 52,500원을 더하고 실제 지급배당 30,000원을 차감한 547,500원이므로 옳다.

③ O
이 상품은 금융부채이므로 배당금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유효이자비용 52,500원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따라서 상환우선주 발행으로 20x1년 당기순이익이 52,500원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틀린 표현은 "배당금 30,000원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분배로 인식한다"는 부분이다. 이 상환우선주는 자본요소가 아니라 금융부채이므로 30,000원은 이익잉여금 처분이 아니라 이자지급액이다. 올바르게는 "20x1년 배당금 30,000원은 금융부채와 관련된 현금지급으로서 유효이자비용 계산에 반영된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상환우선주라는 이름만 보고 자본으로 처리하면 ④처럼 배당을 이익분배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명칭이 아니라 현금상환의무 존재 여부이며, 이 의무가 있으면 배당도 손익거래와 연결된 금융비용으로 본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선주는 먼저 상환의무가 있는지부터 본다. 상환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발행가액은 현재가치로 계산하며, 이후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과 장부가액을 계산한 뒤 배당의 손익처리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의무상환 우선주 = 금융부채, 배당금 = 이익분배가 아니라 이자지급이다.

NoteBase

문 11. 비용의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비용을 배분하는 데 자의성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③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④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의 차이, 특히 정보 유용성과 비용 배분 필요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감가상각비, 급여, 원재료비처럼 비용의 종류 자체로 묶는 방식이며 기능별 배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처럼 비용이 수행한 기능에 따라 묶는 방식이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배분 과정에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K-IFRS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중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며,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기능별 분류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이고, 올바르게는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이다.
2번: X. 비용을 각 기능에 나누어 넣는 과정에서는 기능별 분류에서 자의성과 상당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성격별 분류는"이고, 올바르게는 "기능별 분류는"이다.
3번: O. 성격별 분류는 비용을 매출원가나 관리비 등으로 다시 배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능별 분류보다 적용이 간단하다.
4번: X.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더 유용할 수 있는 쪽은 성격별 분류이다. 성격별 분류는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 비용의 성격이 항목별로 직접 표시되므로, 감가상각비처럼 현금 유출이 없는 비현금 항목을 곧바로 확인하여 이익에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하기가 쉽다. 반면 기능별 분류는 이러한 비현금 항목이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 안에 섞여 들어가 항목별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 예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틀린 표현은 "기능별 분류는"이고, 올바르게는 "성격별 분류는"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능별 분류는 더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성격별 분류는 더 단순한 적용과 미래현금흐름 예측 보조라는 장점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 쉽게 틀린다. 특히 2번과 4번은 각 분류의 장단점을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분류 기준이 비용의 종류 자체인지, 수행 기능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기능별 분류에는 배분과 판단이 따른다는 점, 성격별 분류에는 배분이 필요 없고 현금흐름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입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성격별은 단순·배분 불필요·현금흐름 예측 유리, 기능별은 목적적합·배분 판단 필요이다.

NoteBase

문 12. (주)대한의 20×1년 매출원가는?

(주)대한의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	기말
원재료	₩34,000	₩10,000
재공품	₩37,000	₩20,000
제품	₩10,000	₩48,000

원재료의 제조공정 투입금액은 모두 직접재료원가이고, 20×1년 중 매입한 원재료는 ₩56,000이다.
20×1년의 기본(기초)원가는 ₩320,000이고, 가공(전환)원가의 60%가 제조간접원가이다.

① ₩659,000

② ₩695,000

③ ₩899,000

④ ₩959,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재료원가, 기본원가, 전환원가의 관계를 이용해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기초·기말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재고와 당기 원재료 매입액, 기본원가, 전환원가 중 제조간접원가 비율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1년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은 원재료 투입액 전부가 직접재료원가이고, 제조간접원가는 전환원가의 60%라는 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DM = BI_{RM} + P - EI_{RM}$

$PC = DM + DL$

$CC = DL + MOH, \quad MOH = 0.6CC$

$COGM = BI_{WIP} + TMC - EI_{WIP}$

$COGS = BI_{FG} + COGM - EI_{FG}$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재고 흐름과 기본원가·전환원가의 비율을 모두 주었으므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순서대로 복원한 뒤 매출원가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원가 = 34,000 + 56,000 - 10,000 = 80,000원이다.
2. 기본원가 320,000원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240,000원이다.
3. 제조간접원가는 전환원가의 60%이므로 직접노무원가 240,000원은 전환원가의 40%이다. 따라서 전환원가는 240,000원 ÷ 0.4 = 600,000원이고, 제조간접원가는 360,000원이다.
4. 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80,000원 + 직접노무원가 240,000원 + 제조간접원가 360,000원 = 680,000원이다.
5. 당기제품제조원가는 37,000 + 680,000 - 20,000 = 697,000원이다.
6. 매출원가는 10,000 + 697,000 - 48,000 = 659,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O. 계산 결과 매출원가는 659,000원이므로 정답이다.
2번: X. 695,000원은 재고자산 흐름과 기본원가·전환원가의 관계를 모두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659,000원이다.
3번: X. 899,000원은 총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재공품·제품 기말재고 차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659,000원이다.
4번: X. 959,000원은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재고 차감 구조를 무시하고 금액을 과대계상한 값이다. 올바른 금액은 659,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제조간접원가가 전환원가의 60%라는 문장을 직접노무원가의 60%로 잘못 읽으면 전체 원가구조가 틀어진다. 또한 총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를 한 단계씩 구분하지 않고 바로 더하고 빼면 기말 재공품과 기말 제품 차감이 빠지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계산형 문제는 원재료에서 직접재료원가를 먼저 구하고, 기본원가로 직접노무원가를 복원한 뒤, 전환원가 비율로 제조간접원가를 구해 총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 순서로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원재료에서 직접재료원가를 구하고, 기본원가에서 직접노무원가를 구한 뒤, 재공품과 제품 재고를 차례로 반영하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NoteBase

문 1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몰수품이 화폐성 자산이어서 몰수한 때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한 경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

④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 특히 청구권 확정과 비용의 합리적 측정 가능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부담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되면 인식하는 이전수익이다.
비용 인식은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가 발생하되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핵심 구분

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되면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과료·범칙금·몰수품처럼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제재금수익은 실제 납부나 처분 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비용은 자산 감소 또는 의무 발생만으로 곧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부담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② O
몰수품이 화폐성 자산이면 몰수 시점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 옳다.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처분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

③ X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으로 자산이 감소하더라도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비용을 인식한다.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틀린 표현: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
올바른 표현: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④ O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라는 앞부분만 보고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규칙은 자산 감소 외에 금액의 합리적 측정 가능성까지 요구하므로 측정요건을 빼면 틀린 선지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은 청구권 확정 여부를 먼저 보고, 비용은 자산 감소·부채 증가와 함께 합리적 측정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선지에 '측정할 수 없더라도' 같은 문구가 나오면 비용 인식 요건을 무너뜨리는지 먼저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국가회계 수익은 청구권 확정, 비용은 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와 합리적 측정 가능성이다.

NoteBase

문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댓값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경우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으로 추정한다.

②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지를 평가할 때는 수익의 환원가능성 및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③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④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변동대가 추정방법, 변동대가 제약, 비현금대가 측정, 수익인식 시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댓값은 가능한 대가의 여러 금액을 확률가중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을 고르는 방법이다.
변동대가 제약은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게 하는 기준이다.
비현금 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해 간접 측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기댓값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가의 범위 전체를 확률가중하여 추정한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이다. 이는 기댓값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 방법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기댓값으로 추정하는 경우 가능한 금액들의 확률가중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추정한다"이다.

② O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누적 수익의 유의적인 환입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볼 때는 환입가능성과 환입규모를 함께 고려한다. 선지는 수익의 환원가능성 및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③ O
비현금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그 대가와 교환하여 이전할 약속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선지는 이 예외를 정확히 설명한다.

④ O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한다. 선지는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변동대가 추정방법에서 기댓값과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을 서로 바꿔 놓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①은 방법 이름은 기댓값이라고 해 놓고 내용은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의 정의를 넣어 오답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대가 문제가 나오면 먼저 추정방법이 확률가중 평균인지, 단일 최빈값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변동대가 제약은 환입의 가능성과 규모를 함께 보는지 확인하고, 비현금 대가는 공정가치가 원칙인지와 예외적으로 개별 판매가격으로 간접 측정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댓값은 확률가중,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은 단일금액, 비현금 대가는 공정가치, 수익인식은 통제 이전이다.

NoteBase

문 15.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공장을 착공하여 20×2년 9월 30일 완공하였다. 공사 관련 지출과 차입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수익은 없으며,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공사 관련 지출>

일자	금액
20×1. 1. 1.	₩3,000
20×1. 10. 1.	₩2,000

<차입금 내역>

구분	금액	이자율(연)	기간
특정차입금	₩1,000	4%	20×0. 12. 1. ~ 20×3. 12. 31.
일반차입금A	₩1,000	5%	20×1. 1. 1. ~ 20×2. 11. 30.
일반차입금B	₩2,000	8%	20×0. 7. 1. ~ 20×3. 6. 30.

① ₩40

② ₩175

③ ₩215

④ ₩28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구분하여 20x1년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x1.1.1 지출 3,000원, 20x1.10.1 지출 2,000원, 특정차입금 1,000원4%, 일반차입금 A 1,000원5%, 일반차입금 B 2,000원8%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기간은 월할 계산이므로 10월 1일 지출은 3개월만 반영하고, 특정차입금 부분을 먼저 계산한 뒤 초과 누적지출액에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누적지출액은 $3,000 \times \frac{12}{12} + 2,000 \times \frac{3}{12} = 3,500$이다.
일반차입금 적용 대상 지출은 $3,500 - 1,000 = 2,500$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frac{1,000 \times 5\% + 2,000 \times 8\%}{1,000 + 2,000} = 7\%$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자가건설자산의 차입원가가 지출시점별 가중평균누적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특정차입금 충당분과 일반차입금 충당분을 나누어 자본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x1년 가중평균누적지출액은 3,500원이다.
2.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1,000 \times 4\% = 40$원이다.
3. 일반차입금 적용 대상은 2,500원이고 자본화액은 $2,500 \times 7\% = 175$원이다.
4. 총 자본화 차입원가는 $40 + 175 = 215$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40원은 특정차입금 1,000원에 대한 연이자만 반영한 값이다. 일반차입금으로 조달된 초과 누적지출액 2,500원에 대한 자본화액 175원을 누락했다. 옳게는 총 자본화 차입원가가 215원이다.
② X: 175원은 일반차입금 부분만 계산한 값이다. 특정차입금의 실제 발생이자 40원을 더해야 한다. 옳게는 215원이다.
③ O: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40원과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75원을 합하면 215원이므로 옳다.
④ X: 280원은 특정차입금 차감 없이 전체 지출액 3,500원에 8%를 단순 적용할 때 나오는 값이다. 특정차입금 1,000원은 4%로 별도 계산하고, 나머지 2,500원에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7%를 적용해야 한다. 옳게는 215원이다.

오답 포인트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거나, 10월 1일 지출 2,000원을 12개월 전액 반영하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특정차입금 1,000원을 먼저 차감한 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산형 차입원가 문제는 가중평균누적지출액 산정, 특정차입금 우선 반영,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마지막에는 특정차입금 이자와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을 합산해 정답 선지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차입원가는 가중평균누적지출액을 구한 뒤 특정차입금부터 빼고, 남는 금액에 일반차입금 평균이자율을 곱하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A 중앙관서의 일반회계 20×1년도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A 중앙관서의 20×1년 말 순자산변동표에 계상될 기말순자산액은?

◯ 20×1년 기초순자산은 ₩300,000이고, 재정운영결과는 ₩200,000이다.
◯ 20×1년 중 국고수입은 ₩150,000이고, 채무면제이익은 ₩50,000이다.
◯ 20×1년 중 국고이전지출은 ₩120,000이고, 무상이전지출은 ₩40,000이다.
◯ 20×1년 중 투자목적 장기투자증권을 ₩1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은 ₩30,000이다.

① ₩160,000
② ₩180,000
③ ₩550,000
④ ₩56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순자산변동표에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 직접변동 항목(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을 구분하여 기말순자산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기초순자산 300,000원, 재정운영결과 200,000원, 국고수입 150,000원, 채무면제이익 50,000원, 국고이전지출 120,000원, 무상이전지출 40,000원이다.
투자목적 장기투자증권은 10,000원에 취득하였고 결산일 공정가액은 30,000원이므로 평가이익은 2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기말순자산액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사용할 관계식은 '기말순자산 = 기초순자산 - 재정운영결과 + 순자산증가항목(재원의 조달) - 순자산감소항목(재원의 이전)'이다.
국가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순원가 성격의 값이므로 순자산을 감소시켜 차감한다.
여기서 재정운영결과 200,000원은 이 순원가(비용 초과분)를 의미하므로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 빼는 항목이다.
이 문제에서 국고수입, 채무면제이익, 투자증권 평가이익이 순자산증가항목이고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 순자산감소항목이다.
특히 채무면제이익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교환거래 대가가 아니라 채무가 면제되어 순자산이 무상으로 늘어난 비교환수익(재원의 조달) 성격이므로,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포함되지 않고 순자산변동표에서 재원의 조달로 순자산을 직접 증가시킨다.
투자증권 취득액 10,000원 자체는 현금이 투자자산으로 바뀐 자산 간 대체이므로 순자산을 직접 바꾸지 않는다.

계산 과정

평가이익은 30,000원 - 10,000원 = 20,000원이다.
재정운영결과 200,000원은 순원가(비용 초과) 성격이므로 순자산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기말순자산은 30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12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6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가 16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180,000원은 순자산감소항목인 무상이전지출 40,000원과 순자산증가항목인 평가이익 20,000원을 모두 누락한 값이다. 즉 300,000 - 200,000 + 150,000 + 50,000 - 120,000 = 180,000으로 계산한 오류이다. 틀린 표현 '기말순자산액은 180,000원이다.' → 올바르게는 '기말순자산액은 160,000원이다.'
③ X: 550,000원은 재정운영결과 200,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순자산 증가로 잘못 더하며, 평가이익 20,000원 대신 투자증권 취득액 10,000원을 직접 반영한 값이다. 즉 300,000 + 200,000 + 150,000 + 50,000 - 120,000 - 40,000 + 10,000 = 550,000으로 계산한 오류이다. 틀린 표현 '기말순자산액은 550,000원이다.' → 올바르게는 '기말순자산액은 160,000원이다.'
④ X: 560,000원은 재정운영결과 200,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순자산 증가로 잘못 더한 값이다. 즉 300,000 + 200,000 + 150,000 + 50,000 - 120,000 - 40,000 + 20,000 = 560,000으로 계산한 오류이다. 틀린 표현 '기말순자산액은 560,000원이다.' → 올바르게는 '기말순자산액은 16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재정운영결과를 당기순이익처럼 순자산에 더하면 값이 크게 틀어진다. 재정운영결과는 순원가(비용 초과) 개념이라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 장기투자증권은 취득액 자체가 아니라 결산 시점의 평가손익만 순자산변동표에 반영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자산변동표 문제는 먼저 기초순자산에서 시작한 뒤 재정운영결과의 가감 방향을 확인하고, 그다음 직접 순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항목만 따로 더하고 빼면 된다. 채무면제이익처럼 대가 없이 순자산이 늘어난 비교환수익은 재원의 조달로 직접 가산하고, 자산 취득 자체와 평가손익은 반드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기초순자산에서 출발하여 재정운영결과(순원가)는 차감하고, 자산 취득액은 제외하며 평가손익만 반영한다. 채무면제이익 등 비교환수익은 재원의 조달로 순자산에 직접 더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권을 취득(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권은 활성시장이 존재하며, 20×2년 말 손상이 발생하였고,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연도별 특허권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과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은? (단, 내용연수 동안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공정가치	₩8,400	₩5,900	₩4,200
회수가능액	₩8,500	₩5,400	₩4,100

① 손상차손환입액 ₩5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0

② 손상차손환입액 ₩5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100

③ 손상차손환입액 ₩6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0

④ 손상차손환입액 ₩600,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에서 손상차손 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 그 초과 공정가치 증가는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이다. 20x2년 말 손상 후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 5,400이 된다. 20x3년 초 남은 내용연수는 3년이므로 20x3년 상각비는 1,800이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장부금액은 전기말 장부금액에서 당기 상각비를 차감해 구한다. 손상차손환입액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인식하고, 공정가치가 그보다 더 높으면 초과분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계산 과정

20x2년 말 장부금액은 5,400이다. 20x3년 상각비는 5,400 ÷ 3 = 1,800이므로 손상 반영 전 20x3년 말 장부금액은 3,600이다. 회수가능액 4,100이 장부금액 3,600보다 500 크므로 손상차손환입액은 500이다. 환입 후 장부금액 4,100과 공정가치 4,200의 차이 100은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X): 손상차손환입액 500은 맞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 4,100보다 공정가치 4,200이 100 더 크므로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을 0으로 보면 틀린다.
2번(O): 20x3년 말 장부금액 3,600에서 회수가능액 4,100까지 500을 환입하고, 남는 1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므로 옳다.
3번(X): 손상차손환입액을 600으로 보면 회수가능액 한도를 넘겨 공정가치 증가분까지 모두 당기손익으로 본 셈이다. 틀린 표현은 '손상차손환입액 600'이고, 올바르게는 '손상차손환입액 500'이다.
4번(X): 재평가잉여금 100은 맞지만 손상차손환입액 600은 틀리다. 환입은 회수가능액 4,100까지의 500만 가능하고, 그 초과 1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 분리된다.

오답 포인트

공정가치 4,200과 회수가능액 4,100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600 전부를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이 문제는 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이고 그 초과 공정가치 증가는 재평가잉여금이라는 처리 순서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 계산형은 전기말 장부금액에서 먼저 당기 상각비를 차감해 기말 장부금액을 구한 뒤, 회수가능액과 비교해 손상차손환입액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재평가잉여금으로 분리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이고, 공정가치가 더 높아 생기는 초과분은 재평가잉여금이다.

NoteBase

문 18. (주)대한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각각 ₩400, 유동부채는 ₩500, 매출총이익은 ₩6,000, 유동비율은 200%, 매출총이익률은 60%인 경우 재고자산회전율과 당좌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① 재고자산회전율(회): 10, 당좌비율(%): 60

② 재고자산회전율(회): 10, 당좌비율(%): 120

③ 재고자산회전율(회): 25, 당좌비율(%): 60

④ 재고자산회전율(회): 25, 당좌비율(%): 1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동비율과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 매출원가, 평균재고자산, 당좌자산을 연결하여 재고자산회전률과 당좌비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고자산 400원, 기말재고자산 400원, 유동부채 500원, 매출총이익 6,000원, 유동비율 200%, 매출총이익률 60%
구해야 할 값: 재고자산회전률, 당좌비율
주의할 조건: 재고자산회전률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재고자산회전률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직접 주어진 것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유동비율이므로 먼저 매출액과 유동자산을 역산해야 매출원가와 당좌자산을 구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총이익률 60%이므로 매출액은 10,000원이다. 매출총이익 6,000원 = 매출액 × 60%이므로 매출액 = 6,000 / 0.6 = 10,000이다.
2. 매출원가는 4,000원이다. 매출액 10,000원 - 매출총이익 6,000원 = 4,000원이다.
3. 평균재고자산은 400원이다.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모두 400원이므로 평균은 400원이다.
4. 재고자산회전률은 10회이다. 4,000 / 400 = 10이다.
5. 유동비율 200%이므로 유동자산은 1,000원이다. 유동자산 / 500 = 200%이므로 유동자산 = 1,000원이다.
6. 당좌자산은 600원이다. 유동자산 1,000원 - 기말재고자산 400원 = 600원이다.
7. 당좌비율은 120%이다. 600 / 500 × 100 = 120%이다.

선지 판단

1번: X. 재고자산회전률 10회는 맞지만 당좌비율 60%는 틀리다. 유동자산 1,000원에서 재고자산 400원을 차감한 당좌자산은 600원이므로 당좌비율은 120%이다. 틀린 표현은 당좌비율 60%이고, 올바르게는 120%이다.
2번: O. 재고자산회전률은 매출원가 4,000원을 평균재고자산 400원으로 나눈 10회이고, 당좌비율은 당좌자산 600원을 유동부채 500원으로 나눈 120%이므로 맞다.
3번: X. 당좌비율 60%도 틀리고 재고자산회전률 25회도 틀리다. 재고자산회전률을 25회로 보려면 평균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를 잘못 잡은 경우인데, 실제 계산값은 10회이다. 틀린 표현은 재고자산회전률 25회와 당좌비율 60%이고, 올바르게는 10회와 120%이다.
4번: X. 당좌비율 120%는 맞지만 재고자산회전률 25회가 틀리다. 재고자산회전률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4,000 / 400 = 10회이다. 틀린 표현은 재고자산회전률 25회이고, 올바르게는 10회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총이익률에서 바로 재고자산회전률을 구하려고 하거나, 재고자산회전률의 분자를 매출액으로 착각하면 25회 같은 오답이 나온다. 또한 유동비율로 구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지 않으면 당좌비율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비율 계산형 문제는 주어진 비율을 금액으로 먼저 환산한 뒤,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분하고, 재고자산회전률은 매출원가 기준인지 확인한 다음,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해 당좌자산을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자산회전률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당좌비율은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이다.

NoteBase

문 19. (주)대한과 (주)민국은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으며 이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시점에서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의 교환시점에서 (주)대한의 공정가치가 (주)민국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이 교환거래로 (주)대한은 ₩100,000의 손실을, (주)민국은 ₩50,000의 손실을 인식하였다. 동 교환거래는 공정가치 차이만큼 현금을 수수하는 조건이다. (주)대한이 (주)민국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대한이 수령한 현금액은? (단, 교환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제시된 손익 이외에는 없다)

구분	(주)대한	(주)민국
취득가액	₩700,000	₩600,000
장부가액	₩550,000	₩350,000

① ₩100,000

② ₩150,000

③ ₩400,000

④ ₩4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 인식된 손실로 각 자산의 공정가치를 역산하고, 공정가치 차액으로 현금수수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대한의 장부가액은 550,000원, 민국의 장부가액은 350,000원이다.
주어진 값: 대한이 인식한 손실은 100,000원, 민국이 인식한 손실은 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대한이 민국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상업적 실질이 있으므로 교환손익을 인식하며, 현금수수액은 두 자산의 공정가치 차액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교환손익은 처분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본다. 손실이 인식되었으므로 공정가치는 장부가액에서 손실을 차감해 구한다.
FV_대한=550,000-100,000=450,000
FV_민국=350,000-50,000=300,000
대한의 공정가치가 더 높으므로 대한이 받는 현금은 두 공정가치의 차액이다.
현금수령액=450,000-300,000=150,000

계산 과정

1. 대한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를 손실 100,000원으로 역산하면 450,000원이다.
2. 민국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를 손실 50,000원으로 역산하면 300,000원이다.
3. 대한의 공정가치가 더 크므로 대한은 차액 15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100,000원은 대한이 인식한 손실액일 뿐 현금수령액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현금수령액을 손실액과 동일하게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공정가치 차액 150,000원이다.
② O: 대한의 공정가치 450,000원에서 민국의 공정가치 300,000원을 차감하면 150,000원이다. 공정가치가 더 높은 대한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므로 맞다.
③ X: 400,000원은 주어진 장부가액이나 손실액을 잘못 결합한 값으로 보이며 공정가치 차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차액 계산을 잘못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450,000원과 300,000원의 차이인 150,000원이다.
④ X: 450,000원은 대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이지 현금수령액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자산의 공정가치 전체를 현금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상대 자산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차액 150,000원만 현금이다.

오답 포인트

손실액과 현금수령액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공정가치 전체를 현금으로 오인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손실로 공정가치를 먼저 역산한 뒤 그 차액만 현금이라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교환에서 손익이 주어지면 먼저 장부가액과 손익으로 각 자산의 공정가치를 역산한다. 그다음 누가 더 높은 공정가치를 내놓았는지 확인하고, 그 차액을 현금수수액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환손실이 보이면 공정가치부터 역산하고, 현금은 공정가치 차액만 본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고객에게 상품판매 대가로 이자부 약속어음(만기 5개월, 이자율 연 5%, 액면가액 ₩72,000)을 수령하였다. 이 어음을 2개월간 보유한 후 자금사정으로 ₩72,030을 받고 할인하였다. 이 어음의 할인율과 어음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며, 어음할인은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① 할인율: 8%, 어음처분손실: ₩570

② 할인율: 8%, 어음처분손실: ₩1,470

③ 할인율: 12%, 어음처분손실: ₩570

④ 할인율: 12%, 어음처분손실: ₩1,47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부어음의 만기금액, 은행할인액, 보유 중 인식한 이자수익을 구분하여 할인율과 어음처분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72,000원, 기간 5개월, 이자율 연 5%, 2개월 보유 후 할인, 할인 후 수취액 72,03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할인율과 어음처분손실이다.
주의할 조건: 은행할인액은 만기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음처분손실은 할인시점 장부금액과 수취액의 차이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만기금액은 72,000원 + $72,000 \times 0.05 \times \frac{5}{12}$이다.
은행할인액은 만기금액 × 할인율 × 잔존기간 $\frac{3}{12}$이다.
할인시점 장부금액은 72,000원 + $72,000 \times 0.05 \times \frac{2}{12}$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자부어음의 할인은 만기일에 받을 총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계산하고, 처분손실은 보유 중 이미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한 장부금액과 실제 수취액을 비교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만기이자는 $72,000 \times 0.05 \times \frac{5}{12} = 1,500$원이므로 만기금액은 73,500원이다.
2. 2개월 보유 중 이자수익은 $72,000 \times 0.05 \times \frac{2}{12} = 600$원이므로 할인시점 장부금액은 72,600원이다.
3. 은행할인액은 73,500원 - 72,030원 = 1,470원이다.
4. 따라서 1,470 = 73,500 × 할인율 × (3)/(12)이므로 할인율은 8%이다.
5. 어음처분손실은 72,600원 - 72,030원 = 57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된 할인율은 8%, 어음처분손실은 570원이므로 맞다.

② X
- 할인율 8%는 맞지만 "어음처분손실 1,470원"이 틀렸다. 1,470원은 만기금액과 할인수취액의 차이인 은행할인액이고, 어음처분손실은 할인시점 장부금액 72,600원과 수취액 72,030원의 차이인 570원이 맞다.

③ X
- "할인율 12%"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1,470 = 73,500 × 할인율 × (3)/(12)이므로 할인율은 8%이다. 어음처분손실 570원은 맞는 값이지만 조합 전체는 틀리다.

④ X
- "할인율 12%"와 "어음처분손실 1,47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할인율 8%, 어음처분손실 57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은행할인액과 어음처분손실을 같은 금액으로 보는 착각이 대표적 함정이다. 은행할인액 1,470원은 만기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이고, 처분손실 570원은 보유 2개월 동안 이미 인식한 이자 600원을 반영한 뒤 장부금액과 실제 수취액을 비교한 결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자부어음 할인 문제는 액면금액에서 먼저 만기금액을 구하고, 다음으로 보유기간만큼의 이자를 더해 할인시점 장부금액을 만든 뒤, 마지막으로 만기금액 기준 할인액과 장부금액 기준 처분손실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은행할인액은 만기금액 기준, 어음처분손실은 할인시점 장부금액 기준이다.

NoteBase